

에너지·환경·신

수송용 LPG·경유가격 30% 격차 유지해야

“환경부, 유류가격개편 추진의사 밝혀”

국내 에너지가격 개편과 관련 수송용 LPG가격이 휘발유의 50% 이상, 경유와 30% 이상의 가격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가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의 가격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환경부 한명숙 장관을 비롯해 수입양사 대표, LPG공업협회장 등 정부, 학계 및 LPG자동차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주최로 2003년 LPG자동차 세미나가 열렸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우선 1부에서 저공해 LPG자동차 관련 영상물 상영 및 환영인사가, 2부에서는 ‘저공해 LPG차량 보급정책 및 연료가격체계 개편방안’이, 3부에서는 ‘LPG차량 개조 및 개발 보급사례’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저공해 LPG 자동차 보급 정책’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수송용 LPG가격을 휘발유와 50% 이상, 경유보다는

30% 이상 가격차가 유지되도록 연료 가격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PG차량에 대한 저공해 기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LPG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개발은 물론 LPG업계도 자체 기술개발 및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저공해 LPG자동차 보급계획과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관용차를 중심으로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차량 및 전국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조차량 품질보증 등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해 배출가스 수준 유지 및 부품의 내구성 확보,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상 의무 부과 및 제재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이밖에 최근 낮은 경유가격으로 경유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료간 과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이중 가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산업용과 자가용 승용차의 엄격한 구분과 이에 따른 차등과세를 통해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의 개선, 에너지정

책과 환경정책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연구위원은 산업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현행 에너지조세체계를 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환경세 도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조세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신문>

12월 LPG가격 47원/kg 인상

“부탄가격 상승으로 LPG 증가에 약제”

12월 1일부터 국내 LPG가격이 kg당 47원 인상됐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인해 LPG자동차용 부탄가격이 kg당 1,000원 육박하게 되고 ㄹ로 환산하면 550원 이상이 돼 사상 최고의 부탄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연료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LPG도입가격 강세 영향으로 인해 내년 LPG자동차 신규등록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LG칼텍스가스(대표 신준상)는 지난 달 28일 12월 국내 LPG가격을 kg당 4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인상은 국제 LPG가격이

톤당 20~25달러 인상됐고 환율도 1,180원대로 강세를 보여 국내 LPG공급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인해 LG가스와 거래하는 충전소는 프로판의 경우 kg당 501원에서 548원에, 부탄은 864.00에서 911원(ㄹ 당 27.44원)으로 각각 47원 인상된 가격에 공급받게 된다.

SK가스(대표 신현철) 또한 지난달 29일 12월 국내 LPG가격을 kg당 47원 인상에 프로판은 547.80, 부탄은 911.52원에 거래 충전소에 LPG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월 국내 가격조정 요인을 보면 먼저 국제 LPG가격이 프로판은 톤당 20달러, 부탄은 25달러 각각 올라 LPG도입비용이 평균 22달러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내 가격에는 kg당 약 30원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도 인상돼 LPG가격 인상을 부추겼다.

지난달 평균 1,160원대를 유지했던 환율이 최근들어 1,180원대를 넘어서 18원정도의 LPG가격인상요인이 생겼다.

또한 유럽,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LPG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달 국제 LPG가격도 톤당 30~40달러 인상될 것이 전망돼 가격 인상폭을 좁

새고 있는 배관! 손쉽게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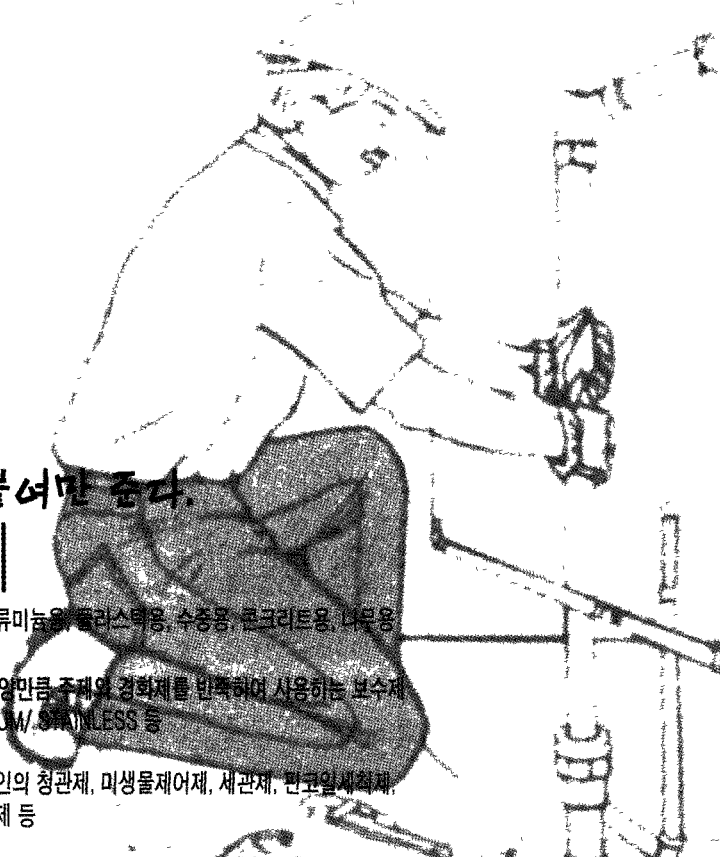
손으로 반죽하여 붙여만 준다. 배관보수 접착제

▶ 강관용, 동관용, 고온용, 다목적용, 알루미늄, 플라스틱용, 수송용, 콘크리트용, 나무용

이액형 보수제 ▶ 주적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제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ALUMINUM/STAINLESS 등

수처리 케미칼 ▶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침관제, 미생물제어제, 세관제, 환교일체화제, 바닥 및 설비세척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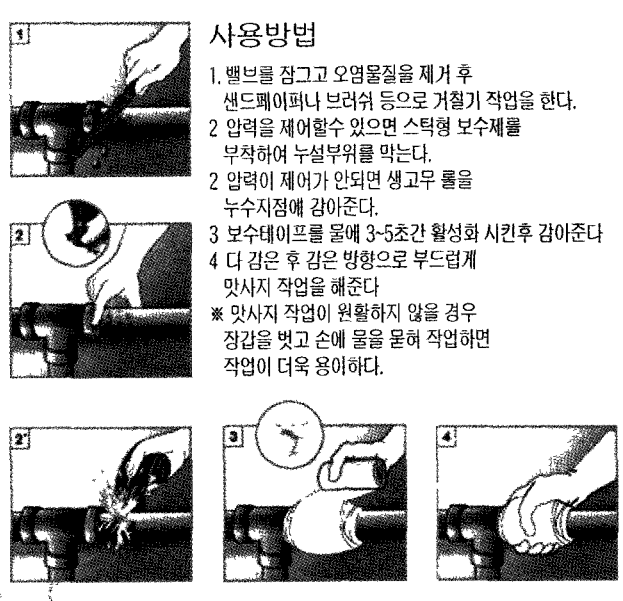
간편하게 감사서 보수한다. 배관보수 테이프 - PRES



사용방법

1. 밸브를 잠그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2. 압력을 제어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2. 압력이 제어가 안되면 생고무 롤을 누수지점에 감아준다.
3. 보수테이프를 물에 3-5초간 활성화 시킨후 감아준다
4. 다 감은 후 감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맞사지 작업을 해준다

※ 맞사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작업하면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



에·니·지·탄·신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입사 관계자는 "LPG를 사용하는 영세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도입비용 및 환율 인상 등의 악재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신문>

내년 천연가스 신규 공급 확대

"김제·운연·정읍·울촌·통영 대상 / 인천 북항, 서천, 진영은 2005년 가능"

내년 1월에 전라북도 김제, 11월에 경기도 운연 및 전라북도 정읍에 공급관리소(G/S) 건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천연가스가 신규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3월 2.6km의 울촌 전력 공급배관 건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울촌 전력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6월에는 10.6km에 이르는 통영지역 공급배관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통영지역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북항화력은 2005년 2월, 충청남도 서천과 경상남도 진영은 2005년 4월 공급관리소(G/S)공사가 완료돼 천연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는 화명V/S와 왜관 G/S의 부지매입 및 인허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05년 11월에 이곳 지역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 전라북도가 전북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전북도시가스는 10년간 약 200여억원을 투자해 100여km의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해 수요처가 밀집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읍지역의 경우 2001년 전라북도가 익산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수요개발 여건은 낮지만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단 활성화와 인구유입등으로 향후 경제성 있는 수요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천리 공급권역인 운연의 경우 안산 및 시흥지역의 수요증가뿐만 아니라 신규택지개발 및 공단 건설 등에 따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급지점의 설치가 필요했었다.

<가스산업신문>

北, 對중국 전력수입 폭증

작년 대비 57배 증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올해 전력교역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북한의

대(對)중국 수입량이 지난해부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1~10월 북한의 대중 전력 수입량은 1천3만8천kWh로 작년 같은 기간(17만4천kWh)에 비해 57배 가량 증가했다.

대중국 전력수입량은 99년 11만5천kWh, 2000년 0kWh, 2001년 6만3천kWh 등 많아야 10만kWh 안팎에 그쳤지만 2002년에는 무려 884만6천kWh로 늘어났다.

특히 2002년 월간 수입량을 보면 1~10월에는 0~3만9천kWh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751만5천kWh, 12월에는 115만8천kWh 등으로 11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는 3월이 385만6천kWh로 가장 많았고 9월에 5천kWh까지 줄었다가 10월에 130만7천kWh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북핵 사태로 작년 12월 미국이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하면서 전력난이 심화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전력수출은 올 1~10월 3천65만kWh로 작년 동기(997만9천kWh)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작년 수출은 4월 한달 동안에만 이뤄졌지만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전력을 팔았다.

올 수출량은 최근 연간 수출이 2000년 2천266만5천kWh, 2001년 3천628만9천kWh, 2002년 997만9천kWh 등이었던 점에 비춰 양적으로 2001년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북중 전력교역은 수자원을 나눠쓰는 수풍 등 압록강 수계 발전소를 통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전력을 라오닝(遼寧)성에 수출하지만 수입할 때는 지린(吉林)성에서 들어오고 있다.

<Joins.com>

12월 LPG수입가격 폭등

"국내價 60원/kg 상승요인"

LPG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내 가격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는 SK가스, LG가스 등 국내 LPG수입사에 12월 LPG수출가격(CP)을 프로판은 310달러/톤, 부탄은 315달러/톤으로 통보했다.

이같은 가격은 지난 11월에 비해 프로판은 30달러, 부탄은 35달러가 인상된 것으로 지난 5월 300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LPG국제가격이 다시 300달러

를 넘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LPG국제가격이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것은 유가(油價)가 전반적으로 올라 있는데다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프로판에 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부탄이 수년 만에 다시 프로판을 뛰어넘어 가격역전 현상을 보이는 것도 눈에 띈다.

수입사 관계자들은 내달 LPG국제가격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5달러 가량 상승하는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수입가격 인상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내 LPG가격은 45원/kg 안팎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더욱이 환율 역시 달러당 1,180원에서 최근 1,200원을 넘나드는 강세를 보임에 따라 15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더해져 모두 60원/kg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수입사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한국가스신문>

산자부, '세녹스' 단속 강행

석사법 조기입법화 추진 / 세녹스측 "법원 무시한 위법행위"

'세녹스' 판매가 재개된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단속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세녹스'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우선 경찰과 협조해 '세녹스' 원료인 용제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세녹스' 제조·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 공장에 단속인력을 상주시키고 공급되는 용제를 전량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 운영키로 하고 필요시 '제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재경부·행자부·법무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8개 기관 관계자들을 소집해 '세녹스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대책 회의'를 열고 "석사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혼란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유사회발유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기관에 '세녹스' 제조·판매 근절과 체납세금 강제징수 등을 추진토록 촉구했다.

경찰청에는 용제 단속과 체납세액 강제징수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해 단속토록 했다.

법무부와 행자부에는 각각 '세녹스'의 불법 증거자료 확보 등 사법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산자부와 협력, 진행키로 하고 '세녹스' 가두판매 등에 대한 소방법상 단속을 실시, '세녹스' 전문 판매점에 대해서는 소방법상의 허가 취소를 검토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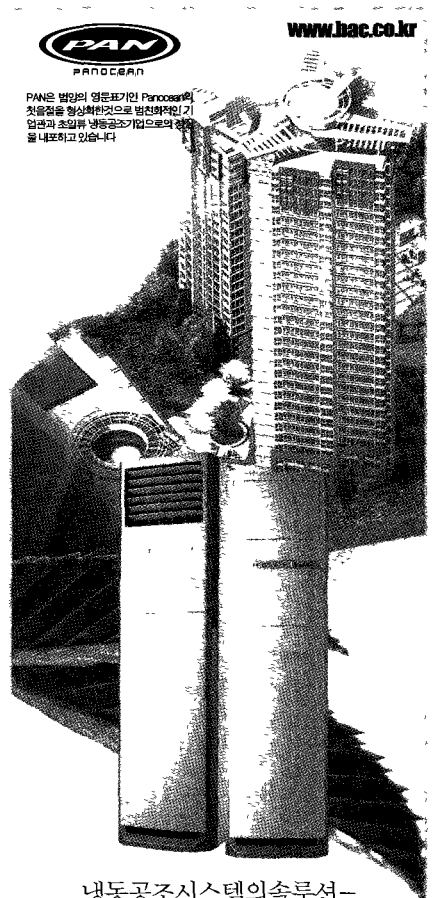
환경부에는 첨가제 기준을 위반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도록 요청했다.

산자부는 현재 추진중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빠른 시일 내로 입법화하고 시행령 등 필요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프리플라이트측 관계자는 "지난 20일 법원의 무죄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석사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도 공익을 위한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나 단속이나 범죄자양산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연관리사업회보 광고문의 T.2679-6343



냉동공조시스템의솔루션-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고객상담실 : (02)401-4321, (교)761-7631

클로버서비스 : 080-022-8815-6